

‘삼성 뇌물’ 아닌 걸 알면서도

[강훈의 MB정정일기 ③]

“그런 일이 있으면 이진희 회장과 직접 이야기해 봤는지… 안 그래요? 김석한 씨도 잘 알지 못했고, 이학수 씨도 나와 별 친분도 없는데 말이지.”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MB가 뇌물 받음에 관해 2018년 4월 MB가 기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인단과 함께 MB를 접견한 자리였다. 검찰은 MB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로펌 ‘에이킨킴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당시 삼성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나 역시 의문이 있었다. MB가 이학수 전 실장과 친분이 없었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자료에도 잘 나와 있었다. 이학수 실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07년 이전 MB를 본 것은 고려대 동문회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잡담 인사로 나는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다.

“대통령께서는 김석한 변호사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검찰은 대통령께서 삼성이 지원하는 자금을 김석한 변호사가 관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득 MB가 김석한 변호사를 알고 있었는지가 궁금해 질문을 드렸다.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사위 이상주 전무를 비롯해 천신일 세종 회장 등 MB 주변엔 삼성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를 통해 삼성 자금을 지원받고자 했다면, 그사람들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허 참! 선거 때 캠프에서 몇 번 본 게 전부예요. 그것도 지금 검찰이 그렇다고 하니까 기억을 해낸 거지. 그땐 매일 수십 명과 접견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해?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삼성에서 받은 뇌물을 관리하라고 시켰다는 게 말이 돼요?”

MB는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김석한 변호사는 삼성 뇌물 사건의 ‘키맨(key man)’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석한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더구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

획관과 이학수 전 실장이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만을 근거로 MB를 기소했다. 그런데 문제는 김백준·이학수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삼성이 MB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학수 전 실장은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MB 측에서 삼성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김석한 변호사가 MB 측에는 삼성이 돈을 주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삼성에는 MB가 돈을 요구한다고 서로 다른 말을 한 것이 된다. 검찰은 이같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진술을 적당히 얼버무려 MB를 기소한 것이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 공금증이 생겼다. 검찰 수사기록 및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다.

김석한 변호사는 법정소송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소송을 수임하는 일을 맡아 동양인으로서는 드물게 미국 변호사업계에서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는 1980~90년대 삼성의 미국 텃밭 소송을 맡으면서 이진희·이학수 두 사람과 인연을 쌓았다. 이후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미국 내 각종 소송 및 로비 활동을 도맡아 수입하면서 에이킨킴프의 수석파트너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석한 변호사가 다스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 주고 있다. 다스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해주면 대통령이 뭔가 다른 일을 해줄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다음날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해줄 ‘뭔가 다른 일’이 “현대차그룹의 미국 소송을 김석한이 수임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에서 소송에 휩쓸렸을 때도 윤 대변인과 일면식도 없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 이 같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불수록 삼성 뇌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제출한 의견서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김석한 변호사가 ▲MB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해주면서 환심을 사고 ▲그 비용은 삼성에 대납받아 자신이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삼성에는 유력후보에 대한 접근 희망성을 충족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에이킨킴프가 더 많은 소송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이윤을 취하는 윈윈(win-win)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은 이처럼 ‘김석한 변호사가 자신이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법률비용을 대납받았다’고 결론 내려놓고는, 삼성으로부터 김석한 변호사가 대납받은 비용이 MB에 대한 뇌물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 MB가 의문을 가진 이유가 이해됐다. MB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려 했다면 이학수 전 실장이 아닌 이진희 회장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누군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김석한 변호사가 아닌 삼성과 가까운 자신의 측근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김석한 변호사가 MB 측에 제공한 에이킨킴프의 법률 지원이 무료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그 횃단의 작업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김석한 변호사의 선택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MB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 뇌물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그렇다면, 삼성이 자금을 댔다는 사실은 MB에게 보고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삼성의 자금지원 사실이 MB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법원은 김백준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다음호에 이어진.

강훈 변호사

악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기자수첩

LH 해체 시킨다고 ‘부동산 失政’ 덮어지나

정부와 여당이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놓고 엇박자 해법을 제시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올해 초 임명된 김현준 LH 신임 사장(전 국무조정실)은 부임한 달 만에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내부 혁신을 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공사 해체’를 추진 중이다.

김현준 사장은 부임 한달여만에 ▲LH 혁신위원회 ▲LH 혁신추진단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출범시켰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2회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에서는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LH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의 자발적 혁신과 별개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LH 해체’를 추진 중이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혁신안은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를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개 지주회사에 2~3개 사업 자회사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는 불미

스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주사 명칭은 ‘주거복지공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내려보낸 신임 사장은 ‘혁신’을, 정부와 여당은 ‘해체’를 추진하는 모양새인데, 이같은 분열 양상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각은 좁지 않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체 시킬거면서 혁신은 무슨’, ‘X개 훈련시킨다’, ‘이렇게하면 국제정장을 왜 LH사장에 앉혔나’, ‘LH 김현준 신임 사장, 윤석열 총장처럼 식물 사장되겠네’ 등의 조롱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각자 행보를 보이는 근본 이유는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을 ‘정책 실패’의 결과로 인정치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폭등의 원인은 ‘투기 세력’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집값을 올린 투기 세력에 대한 응징은 불가피하며, LH가 그 중심에 있다. 소수의 공사 직원이 연루된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공공기관 해체’라는 극약처방에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안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LH라는 공적 기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속 임직원들의 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혁신이다.

이처럼 투기 세력 음모론을 배제하고 팩트에 집중하면 사실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구축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은 2명이다. 수사를 책임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밝힌 내사 인원은 고위공무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국회의원 13명, 지방의원 55명, LH 전현직 직원 77명 등이다.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LH에 적을 두지 않은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내사 명단이 더 많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LH 전현직 직원 중 실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이 빼냈다’는 개발 정보’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특정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집값 폭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LH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모두가 감정을 배제하고 사안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기자수첩

“미안하다 고맙다” 언제부터 금기어 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본인 SNS에 음식 사진을 올려놓고 쓴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쓴 글이 화제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25일과 26일 다수의 네티즌들은 일반적으로 쓴 말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히 한 네티즌은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거 아닌가”라며 “우리를 위해 희생한 생이나 가재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이후 지난달 28일에도 소고기 사진을 올리며 “너희들이 우리의 입맛을 세웠다. 참 고맙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인 2016년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방문록에 남긴 글귀를 패러디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아이들이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정 부회장의 발언을 두

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문구를 따라한 것은 대놓고 저격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일반적으로 쓴 말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히 한 네티즌은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거 아닌가”라며 “우리를 위해 희생한 생이나 가재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이후 지난달 28일에도 소고기 사진을 올리며 “너희들이 우리의 입맛을 세웠다. 참 고맙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인 2016년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방문록에 남긴 글귀를 패러디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아이들이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고 적었다.

정 부회장의 이러한 글은 풍자적 비유에 가깝다. 적절한 대상에 대해 일부 문구를 차용한 것이다. 부적절한 대상에게 사용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음식이 되는 가축이나 해산물에게 쓰는데 의마상 무리는 없다. 인터넷 상에서는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문구 자체가 금기시 되는 분위기다.

영양분이 돼준 음식들에게 고맙고, 우리를 위해 희생했기에 미안하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일 수 있다. 오히려 갈라치기에 능숙한 일부 네티즌이 ‘위트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예능’은 예능일 뿐 ‘다큐’로 받으면 불편함만 쌓인다. 웃자고 편하게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나. 가재도 우럭도 ‘잘가기’ 참 힘든 세상이다. 이준영 기자 lly@meconomynews.com

스타 SNS



2021 신축년(辛丑年) 7월의 띠별 운세

2021년 07월 1일 ~ 2021년 07월 31일까지 띠별 운세입니다
사주역의 단판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



쥐(자, 子)

기회는 항상 주변에 있는 법.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진심어린 주위의 조언을 하루로 듣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원한다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60년생 술선수범해서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72년생 한 우물을 파야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소(축, 丑)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게 된다. 그 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더욱더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61년생 자신이 꿈꾸고 원하던 삶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73년생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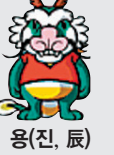
호랑이(인, 寅)

눈 앞에 닥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으나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으니 아직은 안심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상으로 노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62년생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주역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점점 더 일이 꼬인다. 74년생 때사에 참석하게 대응하여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토끼(묘, 卯)

선택에는 항상 고민이 따르는 법. 지금의 작은 것을 얻는다면 후에 큰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익 보다는 대인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3년생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75년생 밝은 표정이 행운을 부른다. 자신감을 갖도록 하라.



용(진, 辰)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부담스러운 일을 맡게 되더라도 몸으로 부치고 바로 뛰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놓인다면 큰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64년생 최대한 버틸 수 있는데 까지 버티라 한다. 76년생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도 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어 준다.



뱀(사, 巳)

몸은 고되지만 결과에 만족함을 느낀다. 보상이 보상이지만 큰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 될 것이다. 65년생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77년생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가기 두려운 청소년처럼 집에 들어가는 것이 편치 않다.



말(오, 午)

결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선임직 또는 결모습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귀인으로 다가를 사람을 결모습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66년생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말을 말하지 말고 하라. 78년생 괜한 일로 노심초사한다. 알고 보면 별 일이 아닐 것이다.



양(미, 未)

자신의 탁월한 능력이 주위의 시샘하거나 질투로 돌아올 수 있으니 행동에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 괜한 부스럼 거리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67년생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겠다. 79년생 일과 사생활은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



원숭이(신, 申)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큰 어려움으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일이나 만큼 한번더 생각하고 작은 것 하더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꼼꼼하게 챙기고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 68년생 사실을 객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보고 차분히 돌아보아야 하겠다. 80년생 행복과 불행이 지금 자신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닭(유, 酉)

대인관계가 매우 좋다. 불편했던 관계의 지인들과 대면하면 했다면 이번을 기회로 상아 화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먼저 손을 내밀면 응할 것이며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69년생 피로가 몰려오거나 권태감으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81년생 점안 분위를 바쁘게, 인테리어를 잘 바꾸는 것이 행운을 부를 것이다.



개(술, 戌)

자신의 의견을 많이 제시하기 보다는 많이 경청하는 것이 좋다. 상의 지체가 되는 아이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70년생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82년생 가정 내 분위기가 화목해지니 즐거움도 함께한다.



돼지(해, 亥)

인맥관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마라. 소홀함이 있으면 지 한변 되돌아 보고 부족함을 반성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든든한 관계 유지에 힘써라. 71년생 그동안 기고하고 싶고 기대감도 있던 곳에 갈 기회가 온다. 83년생 이미 문제가 된 다음에는 다시 되돌리는 것이 힘든 일이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